

청소년의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진숙¹⁾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김현아²⁾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48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가출을 예방하고 실제적 개입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출경험 집단과 비교집단, 가출충동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한 뒤 1) 가출관련 개인요인 2) 가출관련 스트레스 종류 3) 가출관련 위험요인(스트레스, 또래동조성, 가족관련 위험요인) 4) 가출관련 보호요인(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가족관련 보호요인,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유연성)간의 집단간 차이를 밝히고 5)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수를 밝혀내고자 했다. 분석결과, 첫째, 가출경험은 부모의 동거여부, 학업성적, 부의 학력, 가출경험친구와 관련이 있었고 가출충동은 학업성적이 낮을 때, 여학생일 때, 가출경험친구가 있을 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가출경험을 한 집단은 개인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부모이외 가족 스트레스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충동은 개인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부모이외 가족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따른 가출경험집단과 비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위험요인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호요인에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성, 가족관련 보호요인, 모의 양육태도, 성인 지지, 교사 지지, 가족 지지, 학교적응유연성의 전체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가출충동집단과 비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 또래 동조성, 가족관련 위험요인이, 보호요인으로 또래집단의 친사회성,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관련 보호요인, 성인 지지, 교사 지지, 가족 지지,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규범준수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가출 경험한 친구가 있을 때 가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업흥미가 떨어지고 가출한 친구가 있으며 여중생일수록, 가족관련 위험요인이 높을수록, 부모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가출충동을 느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소년, 가출경험, 가출충동, 위험요인, 보호요인

1) 교신저자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전임강사(E-mail : kjs324@hanmail.net)

2) 열린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강사

I. 서론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약 10%는 가출경험이 있으며(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낀다(서울 YMCA, 1996).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출충동은 가출행동의 선행적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서울 YMCA, 1996; 정혜경과 권혜진, 2001) 많은 연구들은 이를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보고한다(배문조와 전귀연, 2002; 조경호와 오덕자, 2006; 박명숙, 2006). 가출이 상습화되어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고(김지혜, 2003)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범죄의 희생양이 되거나(남영옥, 2001) 성공적인 성인기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Rice, Herman & Peterson, 1993) 청소년 가출을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그동안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하순인, 1997; 남영옥, 1998; 정혜경과 권혜진, 2000, 2001; 남영옥, 2002; 한상철, 2000;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및 정혜경, 2006).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들은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가출의 심각성을 경고하여 문제행동을 예측하고 비행으로의 연결고리를 차단시키는 개입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지만 위험요인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주로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적응문제로 연결시켜 다양한 개인내적 요인을 지적한다. 정신신체 증상이나 반사회적 성향(정혜경과 권혜진, 2001), 우울성향(한상철, 2000; 김민정과 김정규, 2006), 자살(노혜련, 김형태 및 이종익, 2005) 성경험여부, 낮은 자아 존중감, 흡연 및 음주

경험(이종화 외, 2006) 등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각기 단일한 위험요인으로 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가출충동을 경험하면 언제든지 가출을 단행할 수 있는 고 위험군으로 재단하거나 모든 가출 청소년을 문제아로 지목하고 비행청소년으로 등식화하기 쉽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을 확인해 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어떻게 왜 문제가 발현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박현선, 1998).

이런 제한점 때문에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내어 이들의 보호요인을 탐색하려는 연구(Rutter 1993; Ahern, 2006)들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가출청소년 연구에서는 병리적 시각에서 보는 정형화된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을 원조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발달적 관점에서 조망해야 함을 지적한다(이현지와 박석돈, 2003). 이러한 보호요인 탐색은 가출을 하나의 결과로 바라보지 않고 가출청소년이 속한 사회적 맥락과 발달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을 파악하는데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함께 분석하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문제행동을 시작하고 자제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예언적 틀로 많이 사용된다(한영옥, 2007). 이러한 보호요인은 가출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작용하여 그 발생을 억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고 상쇄할 수 있는 요인

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예방은 물론 실제적 개입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이 자신을 하나의 사례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를 꺼리거나(이현지와 박석돈, 2003) 낙인과 차별을 받는다는 결과는(남미애, 1998) 가출청소년 연구에서 보호요인을 탐색해야 함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기존 연구들은 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가족요인(김규수, 1993; 남영옥, 1998)과 부모 양육태도(조선정, 2000; 남영옥, 2001), 또래 및 학교환경요인(박명숙, 2006), 사회적 지지(한상철, 2000)등을 꼽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심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가장 깊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출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 양육태도도 가출을 야기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는데(조선정, 2000) 부모의 양육행동이 강한 돌봄 상태에 있을 때 가출을 막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남영옥, 2001). 자녀중심적인 양육태도나 가족의 보호적 환경은 가출을 차단하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래요인 역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또래들이 주변에 확보된 경우 가출을 감행할 잠재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명숙, 2006).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류가 활발하거나 친사회적 성향이 강하여 또래의 지지를 받고 자원의 이용가능성이 커졌을 때 가출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환경요인도 주요한 가출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정혜경과 권혜진, 2001) 가출

충동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에 비해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배문조와 전귀연, 2002). 학교환경요인 중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은 높은 성취동기나 성적, 학교에서의 성공과 그이후의 직업에서의 성취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Hernandez, 1993). 가출은 학교의 적응력 저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적응유연성은 가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요인뿐만 아니라 가출을 억제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작용(한상철, 2000)을 하여 문제행동빈도를 낮춰 주며(Garmezy, 1983), 위협에 대한 조절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Baldwin, Baldwin, Kasser, Zax, Sameroff, & Seifer, 1993; Werner, 2000). 가출 이후 가정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이현지, 2005)에서 가족, 친구, 교사 등의 지지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중재될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된 지지여부보다는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Dressler, 1985; Heller & Swindle, 1983).

이와 같이 가정, 또래, 학교 등 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뿐 만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잠재성이 강조되면서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보호요인이 가출충동 및 가출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직간접적

으로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발달을 가능케 하고 가출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예방과 개입 두 가지의 차원에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파악하려는 기존시각을 탈피하고 가출청소년이 직면한 주변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봄으로써 가출예방에 효율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출 충동 및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 집단과 비교집단, 가출경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고 1) 가출관련 개인요인 2) 가출관련 스트레스 요인 3) 가출관련 위험요인(스트레스, 또래동조성, 가족관련 위험요인) 4) 가출관련 보호요인(또래의 친사회적 요인, 가족보호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유연성)간의 집단 간 차이를 밝히고 이들 요인 중 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냄으로써 가출청소년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여섯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의 유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인관련요인에 따라 가출경험 및 가출충동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4.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가출경험 및 가출충동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5. 보호요인, 위험요인에 따라 가출경험 및 가출충동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6. 청소년의 가출경험 및 가출충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과 가출한 뒤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다. 이를 위해 전남 광주소재 총 3개 중학교와 쉼터를 선정하여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49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설문지에 성실히 응답한 학생 총 48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10세~17세로 평균연령은 13.93세로, 남자 342명(70.22%), 여자 145명(29.77%)이었다. 가출청소년들의 조건은 지역이나 도시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Whitbeck & Simons, 1993) 특정지역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측정도구

위험요인

생활사건 및 스트레스 종류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이 제작한 생활사건 및 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로 문헌연구를 통해 가출과 관련된 스트레스 항목을 연구자들이 추가한 뒤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성적, 전학이나 이사와 같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부모 및 교사, 친구의 학대, 따돌림, 성추행(또는 폭행)에 해당되는 다양한 스트레스(개인스트레스, 또래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부모이외의 가족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또래 동조성 척도. 김선남(1994)의 청소년 비행성향 척도 중 또래 동조성에 관련된 영역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또래동조성 척도는 ‘친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규칙도 위반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등 청소년들이 비행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또래의 의견에 동조하는 성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Cronbach 의 α 계수는 .6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동조성 Cronbach의 α 계수는 .77이었다.

가족관련 위험요인 척도. 한국청소년상담

원(2003)이 개발한 가족관련 위험요인 척도는 주로 비행청소년 가족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의 불화나 부모의 학대, 갈등 등의 요인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신뢰도는 .76-.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관련 위험요인 Cronbach의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척도. Cohen과 Williamson(1988)의 지각된 스트레스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사용하였고, 모두 10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 5문항은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의 α 계수는 .59로 나타났다.

보호요인

또래집단의 친사회성 행동척도 Perkins와 Jones(2004) 등의 친사회성 행동척도를 중심으로 이상준(2006)이 수정한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고 3, 5, 6, 9번은 역 채점 처리 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집단과의 친사회적인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집단의 친사회성 행동척도 Cronbach의 α 계수는 .66이었다.

가족관련 보호요인척도.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의 비행청소년 가족관련 보호요인 18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의 관계나 가족 내 응집성, 가족 내 온정적 분위기 등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서 신뢰도는 .76-.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관련 보호요인 Cronbach의 α 계수는 .93이었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척도.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및 박현선(1996)의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10문항을 사용하였고, 하위영역은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로 나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르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4, 5번 문항은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를 6, 7, 8, 9, 10은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전체 Cronbach의 α 계수는 .89였고, 부의 양육태도척도는 .83, 모의 양육태도척도는 .82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척도. Abramis와 Caplan(1985; 유성은 재인용)이 고안, 유성은(1997)이 수정한 사회적 지지척도로서 주위 사람들의 존중이나 염려, 감사, 정보와 충고, 조력 및 고민 경청 등의 내용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르트 방식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성은(1997)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영역은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가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사회적 지지 외에 성인 지지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전체 Cronbach의 α 계수는 .91이었고, 하위영역 중 가족지지는 .85, 친구지지는 .74, 교사지지는 .86, 성인지지는

.86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유연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유연성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르트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애착정도, 학교에 관련해서는 성적, 성적의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학업태도 등이 있으며 학교 규범준수는 교사의 지시준수, 컨닝, 지각, 정학이나 근신과 같은 징계처벌 경험, 무단결석 등이 문항에 포함되어져 있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 유연성 척도의 Cronbach의 α 계수는 .84였다.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 등 통계적 분석이 필요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척도에 대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가측충동을 겪고 있는 집단과 가측경험을 한 집단간의 평균점수 차이에 대해서는 각각 카이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측경험 및 가측충동과 관련된 설명변수를 중심으로 가측경험 및 가측충동을 결정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연구 자료는 SPSS-WIN 12.0에 의해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의 유무

본 연구에서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출을 했던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67명(13.56%)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충동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487명 중에서 222명(45.58%)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경험, 가출충동의 차이검증 결과

개인적 요인에 따른 가출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X^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부모의 동거여부($X^2=16.655, p < .05$), 학업성적($X^2=22.573, p < .05$), 부의 학력($X^2=6.394, p < .05$), 가출경험 친구($X^2=41.251, p < .05$)가 가출경험과 관련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학업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인식하며, 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 이하고, 가출경험 친구가 있는 집단은 가출경험이 높았다. 개인적 요인에 따른 가출충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X^2 검증을 한 결과, 학업성적($X^2=17.561, p < .05$), 성별($X^2=17.296, p < .05$), 가출경험 친구 유무($X^2=29.179, p < .05$)가 가출충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학업성적이 하위권이

라고 인식할 때 가출경험친구가 존재할 때, 여학생일 때 가출충동이 높아졌다.

가출경험과 가출충동 간의 상관관계 결과

가출경험과 가출충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r = .333, p < .05$)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출경험과 가출 충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종류에 따른 가출경험, 가출충동의 F검증 결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종류에 따른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별 F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가출경험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F검증을 분석한 결과 또래스트레스($F = 3.163, p > .05$)와 학교스트레스($F = 3.437, p > .05$)를 제외한 개인스트레스($F = 8.762, p < .05$), 부모스트레스($F = 24.518, p < .05$), 부모이외의 가족스트레스($F = 26.924, p < .05$)가 가출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스트레스 요인 중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과 몸이 아플 때 가출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스트레스 요인 중에는 부모학대와 부모사별 및 이

표 1.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의 유무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가출경험	유	67(13.56)	가출충동	유	222(45.58)
	무	419(84.81)		무	265(54.41)
	결측치	-		결측치	8(1.61)

표 2. 개인관련 요인에 따른 가출경험, 가출충동의 차이검증 결과

(N=487)

변수	구분	가출경험		X ²	가출충동		X ²
		유(n=67) N(%)	무(n=419) N(%)		유(n=222) N(%)	무(n=265) N(%)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5(11.05)	362(88.94)	16.655***	178(43.84)	228(56.15)	2.641
	비 동거	22(28.57)	55(71.42)		42(53.84)	369(46.15)	
생활수준	상위권	16(13.91)	99(86.08)	.006	52(42.44)	65(55.55)	1.199
	중위권	44(13.79)	275(86.20)		141(44.47)	176(55.52)	
	하위권	7(13.46)	45(86.53)		29(54.71)	24(45.28)	
학업 성적	하위권	34(25.37)	100(74.62)	22.573***	78(58.20)	56(41.79)	17.561***
	중위권	31(10.54)	263(89.45)		128(43.68)	165(56.31)	
	상위권	2(3.57)	54(96.42)		15(26.31)	42(73.68)	
모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37(15.87)	196(84.12)	3.017	106(45.29)	128(54.70)	.760
	전문대학-대학	19(10.49)	162(89.50)		83(45.60)	99(54.39)	
	대학원졸 이상	3(9.37)	29(90.62)		12(37.52)	20(62.58)	
부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33(17.83)	152(82.16)	6.394*	84(44.68)	104(55.31)	1.143
	전문대학-대학	26(12.20)	187(87.79)		100(47.16)	112(52.83)	
	대학원졸 이상	3(5.35)	53(94.64)		22(39.28)	34(60.71)	
성별	남	42(12.31)	299(87.68)	2.076	135(39.47)	207(60.52)	17.296***
	여	25(17.24)	120(82.75)		87(60.00)	58(40.00)	
가출경험 친구	있다	56(24.45)	173(75.54)	41.251***	133(58.61)	94(41.40)	29.179***
	없다	11(4.29)	245(95.70)		88(34.12)	170(65.93)	

*** p< .001, ** p < .01, * p<.05

표 3. 가출경험과 가출충동간의 상관관계 결과

(N=487)

	가출충동	가출경험
가출충동	1	0.333***
가출경험	0.333***	1

*** p< .001, ** p < .01, * p<.05

표 4. 스트레스 종류에 따른 가출경험, 가출충동의 F검증 결과(N=487)

스트레스 유형	스트레스 종류	가출행동			F	가출충동		
		집단	N(%)	TM(SD)		N(%)	TM(SD)	F
개인관련 스트레스	1.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유	5(10.86)			23(48.93)		
		무	41(89.13)			24(51.06)		
	12. 몸이 많이 아프다	유	11(24.44)			30(65.21)		
		무	34(75.55)	5.015	8.762**	16(34.78)	4.746	30.241***
	14.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유	23(27.05)	(.895)		65(75.58)	(.834)	
		무	62(72.94)			21(24.41)		
또래관련 스트레스	19. 이사를 했다	유	29(15.67)			98(52.68)		
		무	156(84.32)			88(47.31)		
	5. 어느 한 아이를 내 친구들과 함께 따돌린 적이 있다	유	29(16.86)			101(58.72)		
		무	143(83.13)			71(41.27)		
	7.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유	4(7.14)	8.253	3.163	33(57.89)	7.903	2.258
		무	52(92.85)	(1.836)		24(42.10)	(1.737)	
학교관련 스트레스	16. 친구들이 나를 자주 때린다	유	8(19.04)			24(55.81)		
		무	34(80.95)			19(44.18)		
	13. 성적이 떨어 질까봐 불안하다	유	42(13.20)			156(49.21)		
		무	276(86.79)			161(50.78)		
	20. 선생님이 많이 때린다	유	20(21.27)			51(54.83)		
		무	74(78.72)	5.253	3.437	42(45.16)	5.080	9.281***
부모관련 스트레스	21. 전학을 했다	유	16(18.82)	(.910)		40(46.51)	(.822)	
		무	69(81.17)			46(53.48)		
	3. 교내 불량서클에서 나에게 접근 해온 적이 있다.	유	6(20.00)			21(67.74)		
		무	24(80.00)			10(32.25)		
	4.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분이 돌 아가셨거나 이혼(또는 별거)상태이다.	유	17(27.41)			39(61.90)		
		무	45(72.58)			24(38.09)		
부모이외 가족관련 스트레스	6.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분과 떨어져서 생활한 적이 있다.	유	31(23.30)			75(55.55)		
		무	102(76.69)	5.328	24.518***	60(44.44)	6.596	57.340***
	15. 부모가 자주 간섭 한다	유	34(17.08)	(.990)		130(65.65)	(.838)	
		무	165(82.91)			68(34.34)		
	18. 우리 부모님은 나를 많이 때린다	유	7(36.84)			17(85.00)		
		무	12(63.15)			3(15.00)		
부모이외 가족관련 스트레스	2.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적이 있다	유	16(11.26)			76(53.52)		
		무	126(88.73)			66(46.47)		
	11.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유	33(60.00)			38(67.85)		
		무	22(40.00)			18(32.14)		
	8. 부모와 떨어져서 형제들끼리만 생활한 적이 있다	유	5(14.28)			22(61.11)		
		무	30(85.71)	7.373	26.924***	14(38.88)	6.829	36.701***
	9. 우리 가족 중에는 오랫동안 신체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유	5(14.28)	(.950)		14(40.00)	(.961)	
		무	30(85.71)			21(60.00)		
	10.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유	5(26.31)			14(77.77)		
		무	14(73.68)			4(22.22)		
	17. 우리 가족과 나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유	28(23.93)			83(70.33)		
		무	89(76.06)			35(29.66)		

*** p < .001, ** p < .01, * p < .05

혼 등이 가출경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이외 가족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가정형편이 나빠졌을 때, 가출한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 가출경험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종류에 따른 가출충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래스트레스($F = 2.258, p > .05$)를 제외한 개인스트레스($F = 30.241, p < .05$), 학교스트레스($F = 9.281, p < .05$), 부모스트레스($F = 57.340, p < .05$), 부모이외의 가족스트레스($F = 36.701, p < .05$) 등에서 가출충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스트레스 요인 중에는 구체적으로 몸이 아플 때,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 이사, 성추행을 당한 경험 등이 있을 때 가출충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성적에 대한 불안요인과 전학, 학교교사의 체벌, 불량서클 친구들의 접근 등이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스트레스 요인 중에는 부모의 사별 및 이혼, 부모의 간섭, 학대 등이 가출충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이외의 가족 스트레스로는 부모와 분리된 채 살아갔을 때, 비행을 하는 형제가 있을 때, 가족 구성원 중 가출한 사람이 있을 때, 가족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때 등이 주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 위험요인에 따른 가출경험, 가출충동의 F검증 결과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따라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충동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F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 위험요인은 가출경험 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호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집단의 친사회성($F = 8.283, p < .05$), 가족 관련 보호요인($F = 7.366, p < .05$), 모의 양육태도($F = 6.888, p < .05$), 성인지지($F = 8.204, p < .05$), 교사지지($F = 3.756, p < .05$), 가족지지($F = 15.953, p < .05$), 학교적응유연성 전체($F = 26.835, p < .05$) 및 하위요소인 규범준수($F = 28.394, p < .05$), 성취태도($F = 11.111, p < .05$), 학업흥미($F = 10.559, p < .05$) 모두에서 가출경험집단이 비가출경험 집단과 비교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집단과의 원활한 교류가 잘 되지 않을 때 가출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나 가족 내 응집력이 강할 때 가출을 막는 중요한 보호자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가출경험을 막는 요인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지지 또한 가출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사회적 지지유형 중에서도 성인지지와 교사지지, 가족지지가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학교적응유연성 전체 척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출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규범준수, 성취태도,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등의 점수에서 모두 낮은 결과를

표 5. 보호요인, 위험요인에 따른 가출경험, 가출충동의 F검증 결과 (N=487)

보호/위험요인		세부요소	가출경험		F	가출충동		F
			유/무	M(SD)		유/무	M(SD)	
위험요인	환경요인	스트레스	유	31.03(0.52)	.633	유	31.32(4.22)	17.253***
	무		30.41(0.21)	무		29.74(4.16)		
	또래요인	또래 동조성	유	24.94(0.64)	2.421	유	25.17(5.46)	31.132***
	무	23.58(0.26)	무	22.54(4.91)				
	가족요인	가족관련 위험요인	유	30.82(1.05)	2.654	유	32.25(9.09)	66.140***
	무	28.57(0.42)	무	26.12(7.53)				
보호요인	또래요인	또래집단의 친사회성	유	35.28(0.61)	8.283***	유	36.31(5.19)	19.379***
	무	37.77(0.24)	무	38.26(4.58)				
	가족요인	가족관련 보호요인	유	57.43(1.69)	7.366***	유	58.37(14.5)	59.774***
	무	64.4(0.68)	무	67. 8(12.41)				
	부모양육태도	모의 양육태도	유	14.73(0.39)	6.888***	유	15.16(3.57)	32.238***
	무	16.31(0.16)	무	16.81(2.84)				
보호요인	사회적지지	부의 양육태도	유	14.40(0.43)	2.508	유	14.11(3.93)	45.492***
			무	15.43(0.17)		무	16.22(2.94)	
		성인 지지	유	14.34(0.46)	8.204***	유	15.37(3.91)	14.446***
			무	16.35(0.19)		무	16.69(3.72)	
		교사 지지	유	14.13(0.48)	3.756*	유	14.46(3.97)	19.784***
			무	15.56(0.19)		무	16.05(3.91)	
	친구 지지	유	18.06(0.43)	1.221	유	17.48(3.67)	.396	
		무	17.49(0.17)		무	17.69(3.49)		
	학교적응유연성	가족 지지	유	16.31(0.45)	15.953***	유	17.46(4.08)	43.876***
			무	19.06(0.18)		무	19.69(3.37)	
		규범준수	유	26.34(0.41)	28.394***	유	27.97(3.91)	55.945***
			무	29. 7(0.17)		무	30.28(2.90)	
성취태도		유	11.31(0.32)	11.111***	유	11.83(2.51)	46.442***	
		무	12.93(0.13)		무	13.43(2.62)		
학교흥미		유	14.52(0.41)	10.559***	유	15.01(3.21)	58.096***	
		무	16.53(0.16)		무	17.25(3.25)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		유	52.18(0.89)	26.835***	유	54.82(7.24)	91.826***	
		무	59.15(0.36)		무	60.95(6.87)		

*** p< .001, ** p < .01, * p<.05

보였다. 즉 가출경험은 학교의 부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충동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결과, 가출충동을 느끼는 집단은 가출충동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위험요인의 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 가출충동을 많이 경험하였으며($F = 17.253, p < .05$) 비행성향이 높은 또래들의 가치에 동조할 때($F = 31.132, p < .05$), 가족 내 학대 및 갈등요인이 많을 때($F = 66.140, p < .05$) 가출을 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은 또래집단의 친사회성($F = 19.379, p < .05$), 가족관련 보호요인($F = 59.774, p < .05$), 부의 양육태도($F = 45.492, p < .05$), 모의 양육태도($F = 32.238, p < .05$), 성인지지($F = 14.446, p < .05$), 교사지지($F = 19.784, p < .05$), 가족지지($F = 43.876, p < .05$), 학교적응 유연성 전체($F = 91.826, p < .05$) 및 각 하위요인인 규범준수($F = 55.945, p < .05$), 성취태

도($F = 46.442, p < .05$), 학업흥미($F = 58.096, p < .05$) 영역에서 가출충동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또래집단과 교류가 원활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가출충동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의 보호요인은 청소년의 가출충동 제어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가족의 응집력이 강하고 온화한 가족분위기일 때 가출을 하려는 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가출충동을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성인, 교사,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교적응 유연성은 모든 하위요인에 따라 가출을 예방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데 학교적응력이 높을 때 가출충동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가출경험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표 6. 가출경험에 대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

요 인	Parameter-Estimate	Std. Error.	Wald Chi-Square	Pr Chi-Square	Odds Ratio
Intercept	.011	2.640	2.875	.090	-4.476
규범준수	1.126	.051	5.453	.020	.119
학업성적	1.529	.214	3.927	.048	.425
가출경험 친구	4.478	.397	14.247	.000	1.499
Concordant=88.6%					Tied=3.0%
Disconcordant=8.4%					C-통계량=.852
-2 Log Likelihood=262.816					sensitivity=35.5%
Model chi-Square=97.110 df=17, p=.000					specificity=97.1%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17.188(p=.028)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 중에는 부모의 동거여부, 학업성적, 부의 학력, 가출경험 친구가, 스트레스 유형 중에는 개인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부모 이외의 가족 스트레스 요인이 가출경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요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호요인 중에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성, 가족관련 보호요인, 모의 양육태도, 성인지지, 교사지지, 가족지지, 규범준수, 성취태도, 학교흥미 총 17개 요인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추출된 4개의 예측변인 중 가출경험 친구 유무는 그 승산비(odds ratio)가 1.499로 다른 예측 변인들에 비해 대상자의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추출된 요인으로는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척도 중 규범준수, 학업성적과 가출 경험한 친구가 있는 것이 다른 예측변인들에 비해 중학생의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관측된 가출자 중에서 가출할 것으로 예측된 확률인 민감도(sensitivity)는 35.5%, 실제 관측된 비가출자 중에서 가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확률인 특이도(specificity)는 9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종 추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본 결과 -2LL값이 262.816이었고, 모델카이자승(Model chi-Square)값도 97.110($df = 17$, $p = .000$)으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H-L통계량(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은 17.188($p = .028$)로 나타나 모형적합이 잘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학교에서의 규범준

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학업성적이 낮으며, 가출 경험한 친구가 있는 경우 가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변수의 영향력(Wald)을 비교해 보면 가출경험 친구가 있고 학교규범준수에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성적이 낮은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충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그 결과 개인적 요인 중에는 학업성적, 가출경험 친구, 성별이 스트레스의 유형 중에는 개인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부모 이외의 가족스트레스가 가출충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요인은 스트레스 수준, 또래 동조성, 가족관련 위험요인 모든 영역에서 보호요인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성인지지, 교사지지, 가족지지, 규범준수, 성취태도, 학교흥미 등 총 21개 요인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추출된 18개의 예측변인 중 성별은 그 승산비(odds ratio)가 .862로 다른 예측 변인들에 비해 대상자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추출된 로지스틱 요인변인 중 부모스트레스, 가족관련 위험요인, 학교흥미, 가출경험 친구, 성별이 다른 예측변인들에 비해 중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관측된 가출자 중에서 가출할 것으로 예측된 확률인 민감도(sensitivity)는 80.2%, 실제 관측된 비가출자 중에서 가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확률인 특이도(specificity)는

표 7. 가출충동에 대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

요인	Parameter-Estimate	Std. Error.	Wald Chi-Square	Pr Chi-Square	Odds Ratio
Intercept	.608	2.143	.054	.816	-.498
학교흥미	.879	.045	8.223	.004	-.129
가출경험친구	.491	.231	9.513	.002	-.712
성별	2.367	.256	11.368	.005	.862
가족관련 위험요인	1.048	.017	7.997	.005	.047
부모스트레스	1.588	.152	9.266	.002	.463
Concordant=75.6%					Tied=2.3%
Disconcordant=22.1%					C-통계량=.743
-2 Log Likelihood=493.714					sensitivity=80.2%
Model chi-Square=170.816 df=18, p=.000					specificity=68.2%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3.887(p=.336)					

6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종 추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본 결과 -2LL값이 493.714이었고, 모델카이자승(Model chi-Square) 값도 170.816(df = 18, $p = .000$)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H-L통계량(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은 3.887($p = .336$)로 모형적합이 잘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습흥미가 떨어지고, 가출한 친구가 있으며, 여중생일수록, 가족관련 위험요인이 높을수록,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는 경우 가출충동을 느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각 변수의 영향력(Wald)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일 때,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가출경험 친구가 있을 때, 학교의 흥미가 떨어졌을 때, 가족관련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컴퓨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8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출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가족, 또래, 학교 등 다양한 환경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밝혔고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출충동이 높은 청소년의 개인 상담은 물론 가족, 학교, 또래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개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출충동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222명(45.58%)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출충동 실태를 파

악한 연구에서 50~70%를 상회하는 결과(정혜경과 안옥희, 2000)가 나온 것과는 달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가출충동이 44%로 나타났다는 점은 가출예방교육을 초등학교 고학년연령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3세에서 14세로 나타났는데 이중 44%가 가출충동을 느꼈다는 연구결과는 가연령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기존연구결과(국가청소년위원회, 2007)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가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가출을 단행하거나 가출충동을 야기하는 개인적 요인은 성별과 낮은 학업성적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은 가출 경험 친구가 있을 때, 학업성적이 낮을 때,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 때, 부모의 학력이 낮을 때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출한 친구여부는 가출충동집단이나 가출경험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소년시기에 또래집단의 가치에 동조하는 행동은 집단적 욕구를 부추겨 비행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이현지와 박석돈, 2003)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또래요인은 가출을 촉발하는 변수로 드러났다. 낮은 학업성적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가출로 연결되는 간접적인 고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요인은 가출을 시도하게 되는 주요 변인이자(남미애, 1998; 박명숙, 2006) 가출충동을 부추긴다는 결과(배문조와 전귀연, 2002)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부모의 지

도 및 감독을 받기 어렵고 가족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직접적 요인이 되므로 집밖으로 끌어내는 유인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낮은 학력과 가출경험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낮으면 소득이 낮을 직종에 종사하거나 가족구성원들과 충분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여 부모자녀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정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튜터링 프로그램이나 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가출친구와 동조하고 교류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을 탐색하여 가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개입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가출충동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출한 친구가 있을 때, 학업성적이 하위권일 때, 여학생일 때 가출충동과 깊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학업성적이 하위권일 때 가출충동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정혜경과 권혜진, 2001)는 일치하지만 남학생들의 가출충동이 높다는 연구결과(정혜경과 안옥희, 2000)와는 부합되지 않았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가출행동으로 이어지는 빈도는 적었지만, 가출충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요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피험자들은 중,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여학생의 정서적 변화나 여성 특유의 민감한 감수성으로 인한 가출충동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 가출경험과 가출충동 모두 다양한 스트레스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부모 및 가족스트레스요인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사별, 부모의 이혼 및 별거를 경험하여 형제들끼리 생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고, 가족구성원 중 가출했던 사람이 있거나 부모가 자주 간섭할 때 가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가족관련 요인과 가출행동 및 가출충동과의 상관성을 밝힌 선행연구들(전귀연과 배문조, 2001; 배문조와 전귀연, 2002; 정혜경과 안옥희, 2000)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가출경험 및 가출충동을 야기하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는 가출충동이 가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Chun, 2004) 만성적 외상 후 사건들이 가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Williams, Lindsey, Kurtz & Jarvis, 2001)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요인이 가출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망, 이혼, 친구로부터의 따돌림, 가족구성원의 가출 이후 대처자원이 부족하고 자아가 완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여 가출을 통해 현실을 도피하거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방출구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hompson, 2005)를 경험한 이후 또는 3가지 이상의 긴장된 사건을 경험한 다음 가출한다는 연구결과(이용교, 1991)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출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가출의 진입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가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가족 내 위기나 또래간의 심한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증진기술, 사회적 기술훈련, 충동조절 프로그램이나 대처자원개발 및 자아기능 강화, 위기개입,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학교상담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따른 가출경험 및 가출충동의 검증결과에서 가출경험집단은 위험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가출충동집단은 가족 위험요인(부모의 사망, 이혼 및 별거)에서 비교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가출충동집단과 가출경험집단 모두 동일하게 보호요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출충동이 가족 구조적 문제와 직접적 요인이 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정혜경과 권혜진, 2001)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 지지 요인중 성인과 교사, 가족의 지지가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가족 내 구성원의 이탈이나 가족 내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가족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제공이 중요한 보호요인이 됨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가족외부의 지지가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Werner & Smith, 1992)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경험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성인이나, 교사가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Leathers, 2000; Jackson, 1993) 가출을 차단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지역사회 교사, 성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가출예방 교육, 위기발생 시 연계망 구축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상담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 내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기반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은 긍정적 지지 체계로 작용하여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출경험집단과 가출충동집단 모두 가족의 보호요인이 존재할 때, 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긍정적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경험 및 가출충동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가족보호요인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특히 가족갈등은 또래적응이나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가출을 야기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중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가족개입은 가출예방에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강화 부모교육 교육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과정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상담책략이 요구되며 기본적인 교육이수와 같은 정책제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에 대한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출경험은 가출경험친구가 존재

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잘 따르지 않을 때, 학업성적이 떨어졌을 때 순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가출충동은 여학생일 때, 부모스트레스가 심할 때, 가출경험친구가 존재할 때,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에 대한 흥미가 경감하였을 때 부모관련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출경험이나 가출충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학교요인들 들 수 있다. 규범준수를 잘 하거나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을 때 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규범준수는 특히 교사의 지지와 격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 받는 등 환경의 자극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업흥미를 잃는 것은 곧 학교중도탈락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학교 사회사업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프로그램 등의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최소한 보호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과 성취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복귀 후에도 학교는 낙인과 차별을 부여하는 공간이 된다(남미애, 1998). 가출청소년들이 학교복귀 후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교복귀 이전에 중간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가출경험과 가출충동 두 변수에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들

을 탐색하여 가출의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였고 보호요인을 통해 가출청소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출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가출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 결함을 가진 부류로 인식하며 가정복귀를 통한 획일적 접근방식만을 강요하기 쉽다. 이러한 단선적이고 문제 중심적 개입방법에서 다양한 개입과 강점 지향적인 관점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점에서 보호요인의 탐색은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광주시내에 위치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전국 중학생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가출을 경험한 학생 수가 67명으로 가출경험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충동은 위험행동의 예측지표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갈등적 상황을 탈출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려는 목표 지향적 시도로 볼 수도 있다. 가출은 자아정체성의 탐색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새로운 인생철학을 배우게 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김영지, 1995) 가출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를

통해 가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목하여 유연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인식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출충동이 가출경험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경로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호요인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탄력성 요인을 추가하여 고 위험 상황에서도 가출을 선택하지 않고 적응을 잘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가출 경험 청소년의 가출 이후 실태 및 상습적 가출을 방지하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 백서.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 김규수 (1993). 가출청소년의 가족체계특성, 범정논총, 275-299. 대구대학교.
- 김민정, 김정규 (2006).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여자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 일반. 25(2), 41-57.
- 김선남 (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지 (1995).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1, 136-154.
- 김지혜 (2003). 가출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99-121.
- 남미애 (1998). 여성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 63-90.
- 남영옥 (1998). 가족의 심리 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생존 전략적 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4(3), 222-255.
- 남영옥 (2001).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2), 143-172.
- 남영옥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 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행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0, 173-207.
-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5-34.
- 문화관광부 (2006). 2006 청소년 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박명숙 (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85-106.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문조, 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연구: 개인, 가족, 학교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서울 YMCA (1996). 청소년 가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YMCA 청소년 쉼터, 31-38.
- 이상준 (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 (1996).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용교 (1991). 가출청소년과 비 가출 청소년의 긴장과 대처양식. *한국청소년연구*, 5, 197-206.
- 이종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여자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3(3), 161-179.
- 이현지 (2005). 가출청소년 재 가출 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3), 283-304.
- 이현지, 박석돈 (2003). 가출여성 청소년의 삶과 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1-20.
- 전귀연, 배문조 (2001). 가출행동빈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특성비교. *한국가족복지학*, 6(1), 107-125.
- 정혜경, 안옥희 (2000).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1), 483-493.
- 정혜경, 권혜진 (2001).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모형. *정신보건간호학회지*, 10(1), 76-86.
- 조경호, 오덕자 (2006). 사회 환경요인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출 충동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6), 427-434.
- 조선정 (2000). 비행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순인 (1997).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종단적 연구Ⅲ.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
- 한영옥 (2007). 재미한인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95-116.
- 한상철 (2000). 가출청소년 및 학교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원과 우울과의 관계. 연구보고 99-P03.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철 (200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7(1), 1-21.
- Ahem, N. R. (2006). Adolescent Resilience: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1(3), 175-185.
- Baldwin, A. L., Baldwin, C., Kasser, T., Zax, M., Sameroff, A., & Seifer, R. (1993). Contextual risk and resiliency during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741-761.
- Cohen, S., & Williamson, G. M. (1988).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S. Spacapan & Oskamp(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pp. 34-67), Newbury, CA: Sage.
- Chun, J. (2004).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runaway youths: an application of concept mapp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Dressler, W. (1985). Extended family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a Southern Black Commun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39-48.
- Heller, K.,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New York: Pergamon Press.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Jackson, J. F. (1993). Multifil care-giving among African Americans and infant attachment: The need for an emic approach. *Human Development*, 35, 87-102.
- Leathers, S.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 547-563.
- Rutter, M. (1993) Resilience: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4, 626-631.
- Thompson, S. J.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Trauma Symptoms Among Runaway/Homeless Adolescents. *Stress, Trauma and Crisis*, 8, 143-156.
- Werner, E. E. (200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J. P. Shonkoff & S. 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pp.118-13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hitbeck, L. B., & Simons, R. L. (1993). A comparison of adaptive strategies and patterns of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adolescents and adults. *Violence and Victims*, 8, 135-152.
- Williams, N. R., Lindsey, E. W., Kurtz, P., & Jarvis, S. (2001). From trauma to resiliency: Lessons from former runaway and homeless youth. *Journal of Youth Studies*, 4(2), 233-253.
- 1 차원고접수 : 2008. 01. 31.
수정원고접수 : 2008. 02. 18.
최종게재결정 : 2008. 02. 2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s of Runaway Youths and the Runaway Impulse

Jin Sook Kim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Welfare
Chosun University

Hyun-Ah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Open Cyber University

This study, utilizing the responses of 487 middle school students, explored ways to prevent students from running away from home and to intervene practically in the problem of youth runaway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youth impulse to run away as well as to act upon the impulse, in terms of both a risk factor and a protective factor.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is. First, students' running away from home was related to their academic performance, their fathers' academic level, whether they lived with their parents or not, and whether they had friends who ran away from home. In addition, their impulse to run away was linked to their academic performance, gender, and whether they had friends who ran away from home.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stress levels and their act of running away from home found that their running away from home was highly related to parents-related stress factors such as divorce, separation, death, abuse, and conflicts with parents. Third,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group whose members had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and a control group with regard to protective factors and a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wo groups displayed few differences in regard to the risk factor. However, the two groups showed a difference in the sub factors of the protection factor such as the peer group's pro-sociability,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social support from adults, teachers and family, and school resilience. Another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group whose members felt the impulse to run away from home and the control group with regard to both the risk factors and protection factors. The two groups exhibited differences in the sub factors of the risk factor such as stress, peer conformity, and family risk factors. The two groups also displayed differences in the sub factors of the protection factor such as the peer group's pro-sociability, family related protection factor, adults' support,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resilience. Lastly, a runaway decision model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tudents who had difficulty in observing norms at school or had family members or friends who ran away from home showed a higher possibility of running away from home. In the meantime, the students displayed a higher possibility of feeling the impulse to run away from home when they were female or had less interest in study, had friends who ran away from home, had higher family related risk factor, felt a strong impulse when drinking alcohol, or experienced frequent parents interference.

Key words : Youth, runaway experience, runaway impulse, risk factor, protective factor